
멀티소방관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multi firefighter system

정 정 균* · 유 선 목** · 박 재 휘***
Jung, Jung Kyun · Yu, Sun Mok · Park, Jae Hwi

요 약

과거 소방공무원의 선발시 운전요원과 화재진압요원을 구분하여 선발하였으나 2005년 이후부터 소방공무원 선발시 멀티소방관 육성이라는 목적하에 통합소방공무원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멀티소방관제도를 통하여 3교대 근무로 인한 소방공무원 인력의 운영에 효율성은 증진되었으나 실제 대형소방차를 운전 경험이 없는 소방관의 현장 배치로 그 심적 부담을 소방관에게 지우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멀티소방관제도의 운용이 현실에 있어서 그 실효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멀티소방관 제도의 현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keywords : 멀티소방관

1. 서 론

멀티 소방관제도는 2007년 7월 경기도 소방재난 본부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이는 기존에 소방관 한 명이 자신이 맡은 분야만을 담당하던 것과는 달리 화재 진압, 구조, 구급, 운전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하여 한정된 소방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취지였으나 소방관들 내에서는 멀티 소방관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실효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어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멀티소방관 제도의 운영의 현 실태 및 문제점을 제시하고 과연 멀티소방관 제도가 필요한지 실효성에 대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2.1. 멀티소방관 제도의 도입 취지

과거 소방공무원은 기관(운전요원)과 경방(화재진압요원)을 구분하여 선발하였다. 그러나 2003년 법 개정을 통해 2005년부터 소방공무원을 업무 구분없이 선발하는 통합소방공무원 제도를 도입하였다. 일명 멀티(Multi)라고 하는 멀티소방관제는 소방관 한 명이 한 분야를 담당하던 기존과

* 정회원 ·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박사과정 jkjjk0@naver.com
** 정회원 ·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석사과정 sme7599@naver.com
*** 정회원 ·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석사과정 dainbark@hanmail.net

달리 화재진압은 물론 구조·구급·운전 등 다양한 기능(멀티)을 갖추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하여 한정된 소방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였다.

2.2. 멀티소방관 제도 운영의 현황

불도 끄고 인명도 구하고, 구급활동도 하며, 소방차량 등 장비도 자유자재로 다루는 멀티소방관을 육성하고자 2006년부터 공채 임용자들을 기준으로 진압과 운전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소방관을 채용하고 있다. 임용 이후 소방관이 자기의 직무 이외에 타 분야에서 일정한 기준에 맞는 교육 및 훈련을 거친 뒤 자격을 부여하는데 이때 4개의 분야에서 모든 자격을 갖춘 사람을 A급 요원, 3개 분야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은 B급 요원, 2개의 분야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C급 요원, 1개의 분야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D급 요원으로 분류하여 총 4등급으로 멀티소방관 체제를 운용하고 있다.

2.3. 멀티소방관 제도의 문제점

멀티소방관 제도의 도입으로 인원부족의 인한 소방인력 운영의 효율성은 증진이 있었으나, 빈번한 보직의 변화에 따른 전문성 부재 등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멀티 소방관 제도를 실제 경험한 소방관 A씨는 ‘멀티 소방’이 부족한 소방인력을 채우는 ‘임시방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가)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제도 자체는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는 장비조작훈련 증가 등을 통해 그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제도 탓에 “숙달된 운전요원에게만 주던 대형 특수차량을 비 숙련자가 운전하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며 “이는 소방인력이 부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오마이뉴스, 2013)

3. 결론

멀티소방관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첫째, 운전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시스템 부재이다. 현재 소방사 신입교육에는 소방차 조작에 대한 교육만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차 운전’에 대한 사전교육이 없는 상태에서 현장부서로 배치 받아 소방차량을 운전하고 있다. 이때 신입자들로부터 자체 운전교육을 받으나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어 어려움이 있고 기존의 직원들도 다른 분야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운전에 대한 기술퇴보 현상이 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잦은 보직변경에 따른 전문성 부재이다. 기존 운전요원의 휴가·교육 등으로 부재가 발생하면 화재진압요원을 하다가도 운전요원으로 보직이 변경될 수 있고, 이때 구급차나 펌프차, 물탱크차 등 다양한 소방차종을 운전하게 된다. 이는 잦은 보직변경에 따른 운전에 대한 집중도가 저하될 뿐 아니라 차량에 대한 제원 파악도 안 된 사항에서 운전을 하고 있어 상황발생 시 대처 능력 등 전문성이 떨어져 사고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로 인해 사고 원인분석에서도 운전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멀티소방관 제도는 좋은 취지와 목적으로 포장했지만 화재 및 구급 현장은 순간에 의해 목숨이 좌우되는 곳임을 생각한다면 자격증과 교육으로 멀티소방관을 육성하겠다는 생각은 사실상 탁상행정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보여진다.

참고문헌

오마이뉴스(2013.02.28), “멀티소방관제.....탁상행정의 표본 ”